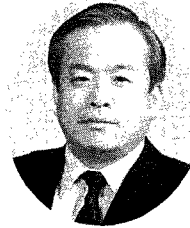


축산업계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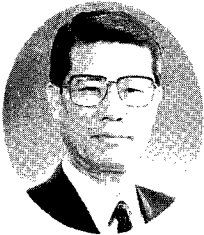
농림수산부 제1차관보에 박상우 전 산림청차장을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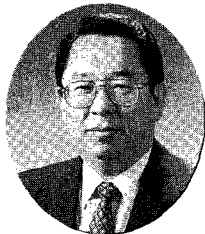
◁ 박상우 산림청 차장

정부는 지난5일 농림수산부 제1차관보에 박상우 산림청 차장을 임명했다.

산림청 차장에 김동태 전 축산국장을, 축산국장에 원광식 전 양정국장을 임명



◁ 김동태 산림청 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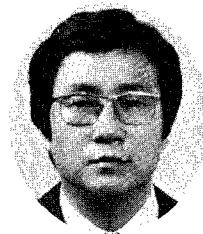
◁ 원광식 축산국장

정부는 지난7일 산림청 차장에 김동태 전 축산국장을, 축산국장에 원광식 전 양정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청와대 농수산 수석실에 비서관 3명 임명

청와대는 지난 12일 새로 설치한 농수산비서관실에 농수산정책, 농어촌산업, 농어촌복지 비서관을 각각 신설하고, 농수산정책 비서관에는 박청정씨(전 농정수산부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농어촌산업 비서관에 박화수씨(전 총리실 행정조정관), 농어민복지 비서관에 이정환씨(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역개발 실장)가 각각 임명 되었다.

농진청 가축위생연구소 계역과장에 김기석 전 계역과 연구관 임명



◁ 김기석 계역과장

농진청은 지난 1월14일 가축위생연구소 계
역과장에 전 계역과 연구관을 임명했다.

축산물(돼지, 닭, 계란)가격안정대 책 추진키로

농림수산부는 지난 25일부로 축산물(돼지,
닭, 계란)가격안정대책(축통 51550-21)을 추
진키로 했다.

1. 축산물(돼지, 닭, 계란)가격안정대책추진

축산물(돼지·육계·계란)가격이 '93 12월
하순부터 계속 강세를 지속하고 있고 앞으로
설날(구정)의 성수기에 대비하여 가격안정대책
을 아래와 같이 추진코자 하오니 동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
를 건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돼지가격 안정대책 추진

• 시·도 및 생산자단체에서는 설날(구정)
성수기에 대비하여 비육돈출하를 평시보다 30
% 이상을 확대 조치

〈시·도〉

• 관련기관 및 생산자단체와 합동 출하반
편성운영('94.1.25~2.9까지)

• 등록·허가업체에 대한 출하물량 확대
독려

• 지방육의 대도시 반출 확대에 따른 출하
물량 확대에 따른 당일책임 도축처리

• 수출잔여육유통개선자금지원 수출업체로
하여금 비축돼지고기 방출 확대조치

〈생산자단체 : 축협, 양돈조합, 양돈협회〉

• 자체 출하독려반 편성 및 계통출하물량
확대 조치

• 출하물량 확대에 따른 당일책임 도축처
리(축공)

2. 육계 및 계란가격 안정대책 추진

• 양계산물(육계·계란) 수매비축자금 지원
조합 및 업체에 비축재고 방출확대 조치

3. 시·도 및 생산자단체에서는 생산자의 자
율적인 사육조절을 위한 대 농가지도 강화

• 양돈·양계협회에서는 축산업 자조금을 활
용하여 대 농가홍보

초지신고절차 간소화키로

정부는 최근 제32차 행정쇄신위원회를 열
어 초지규정에 의한 신고업무내용을 의결하고
법규정 일부를 수정, 초지신고 간소화키로 하
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이번에 일부 수정된 초지법규정 의한 신고
업무내용에 따르면 초지법규정에 의한 초지조
성허가를 받아 조성한 초지의 양도, 양수, 임대
차, 기타의 사유로 관리주체의 변동이 있는경
우 새로운 관리자가 신고해야하며, 다년생 개
량목초재배지를 사료작물재배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초지관리자가 신고하면 된다.

신고대상기관은 시장, 군수(자치구의 경우
구청장)이며, 접수처는 시, 군, 구 민원실 또는
초지업무담당기관이다.

신고기간은 관리주체 변동일로부터 60일이
내 이며, 다년생 개량목초재배지에 사료작물재
배신고는 사료작물과종예정일로부터 소급하여
60일이전에 신고하면된다. 신고기간은 오는 2
월말까지이다.

국제경쟁력 확보방안 모색 「워크숍」 개최



최근 UR농축산물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국제경쟁력 확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6일 축산신문사 주최로 축협중앙회 소회의실에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제1주: 생산부문을 중심으로, 제2주제: 유통부문을 중심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특히 양계분야(채란)의 경우 서술·경기양계협동조합 강희구 조합장이 참석하여 채란의 경우 이미 개방될 것은 다 개방돼 있는 상태에서 채란의 특수성을 감안해 불매 개방과는 커다란 관계없이 국내 채란업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오 5시30분 축협 대강당에서 신년 교례행사도 겸하여 실시하였으며, 본회에서는 최준구 회장이 참석하였다.

UR대응과 농정개혁을 위한 범국민 대토론회 개최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저지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주관한 “UR 대응과 농



정개혁을 위한 범국민대토론회”가 지난 14일 한국 노총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범국민대토론회는 “벼랑에 선 우리농업·농촌을 살리자”에 대해 김성훈 범대위 상임집행위원장의 발제강의를 하였으며, 주제발표에는 △UR농산물협상과 농산물수입개방 대책(황장수, 한국농어민후계자중앙연합회 정책실장) △농정의 목표 및 기본방향(김준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실장) △농정의 중장기적 과제(농민단체 대표) △우리농업·농촌회생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김완배,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향후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저지 범국민운동의 방향과 과제(최종진,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사무처장)로 진행되었으며, 이어 각 참가단체별로 제출의견이 있었다.

특히 본회 최준구 회장은 “UR타결과 관련한 양계산업 대책”이란 주제로 의견을 발표하였다.

우리축산살리기 대토론회 개최

축산중앙회(회장 송찬원)가 주최한 “우리 축산살리기 대토론회”가 지난 21일 축협중앙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축산물 개방과 파급 영향(농경연, 이재옥 박사) △한국축산의 경쟁력 제고방안(강원대, 이병오) △축산물 유통개선과 합리적 형태(건국대, 정찬길) 등의 주제 발표가 되었는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재옥 박사는 UR타결에 따라 앞으로 축산물이 계속 수입되어 오는 2000년의 국내 쇠고기 자급율은 24%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해 충격을 주고 있다.

'93년도 배합사료 생산량은 '92년대 비 2.6% 증가에 그쳐

한국사료협회에 따르면 '93년도 배합사료 생산실적은 1천3백1십4만3천여톤으로 '92년도 1천2백7십9만9천여톤에 비해 불과 2.6% 증가, 예년평균증가를 10%에 못미친것으로 분석되었다.

축종별 생산량을 보면 양계사료는 3백6십1만4백여톤, 양돈 4백3십9만6천8백여톤, 낙농 2백5만4천여톤, 육우 2백6십6만1천6백여톤, 기타 3십만4천여톤으로 '92년대비. 0.1%, 0.9%, 8.8% 각각 감소하였으나, 젖소와 육우 사료는 5.1%, 13.2% 각각 증가하였다.

표1. '93년도 축종별 배합사료 생산성

(단위: 톤, %)

구분	93. 1~12 (A)	92. 1~12 (B)	A/B(%)	
양	육추	371,565	403,144	92.2
	산란	1,653,580	1,611,544	102.6
	육계	1,257,161	1,271,178	98.9
계	중계	328,153	329,836	100.5
	소계	3,610,459	3,615,702	99.85
양돈	4,396,894	4,437,102	99.1	
낙농	2,052,073	1,955,156	105.1	
비육	2,661,603	2,351,350	113.2	
기타	304,032	333,288	91.2	
계	13,027,063	12,693,098	102.6	

일선축협 가축인공수정료 최고5천원 인상

일선축협의 가축인공수정료가 금년부터 회원 조합이 자율토록함에 따라 한우의 경우 1차는 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2차는 5천원에서 8천원으로 각각 인상되었다. 또한 젖소의 경우는 1차가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2차는 8천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시장 1백28곳 육성키로

농림수산부는 가축시장을 산지 생산유통의 거점시장으로 정비, 육성하여 이용도 증대 및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금년내에 가축시장 1백28개소를 육성키로 했다.

가축시장 기본방침은 △산지 생축 유통체계 및 거래질서 확립 △양축농가지도 봉사 기능강화 △가축시장의 통폐합 이전 육성토록 하고 금년내에 이를 실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대두박 톤당2백28달러에 거래

중국산 대두박이 지난 '91년 7월이후 부터 국내 사료원료로 수입되고 있는데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현재 톤당 C&F기준 중국산 대두박이 2백28달러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개 축협 새조합장 선출

최근 문경축협을 비롯한 10개 축협은 각각 새조합장을 선출하였는데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문경축협 : 박돈영 조합장
- 해남축협 : 이정목 조합장
- 나주축협 : 김복동 조합장
- 용인축협 : 홍재구 조합장
- 남해축협 : 이춘송 조합장
- 고성축협 : 김충길 조합장
- 김해축협 : 정진화 조합장
- 함양축협 : 임기택 조합장
- 영암축협 : 강우석 조합장
- 이익축협 : 김기영 조합장

육계 경쟁확보방안 토론회 개최

축산시험장에서는 지난 12월11일 육계 국제경쟁력 확보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육계관련 각분야 전문가 40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국내 육계현황이 수출은 물론 수입에 대처 할 경쟁력이 없다고 결론짓고 업계, 농가, 단체가 △종계생산성제고 △시설의



환경개선 △규모의 전업화 △질병예방 등에 공동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산학회 회장에 김춘수 교수 선임



축산학회장에 전 부회장으로 일해오던 단국대 김춘수 교수가 선임됐다.

단국대 천안캠퍼스 부총장과 본회 검정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김춘수 회장은 회원들간에 인화를 도모하여 내실있는 학회를 이끌어갈 포부를 밝혔다.

일먹고 키자랑

닭먹고 힘자랑!